

“이대로 묻혀선 안된다”... 뒤늦게 침묵 깬 친구들

고교생 죽음 학폭 실제 드러나

또래 학생들의 오랜 폭력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 <광주일보 7월 5일 6면> 자녀의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부모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면서 관심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당 고교생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덮여 질 것을 우려한 친구와 학부모들이 침묵하지 않고 부모에게 동영상의 존재를 알리는 등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며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랜 기간 지속된 학교폭력의 실체가 드러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엄정한 처벌을...” 부모 청와대 청원 올려=6일 광주광산경찰 등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인해 생을 마감한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

유족에 피해 동영상 등 제공

부모 “자녀 원통함 풀어달라”

‘가해자 엄정 처벌’ 국민 청원

원 글은 지난 5일 올라온 지 이틀 만에 5만9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요건(100명 동의)을 충족하기 전부터 SNS로 퍼져가면서 동의자가 급격하게 늘었다. 이 청원은 현재 사전동의 요건을 충족해 관리자가 검토중인 상태다.

고교생의 아버지는 글에서 “웃는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학교에 간다던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고, 인근 산으로 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면서 “정례를

치르던 중 교실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아들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보받고, 수년간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선택한 마지막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적었다.

아버지는 “친구들과 잘 지내다고 말하던 아이인데, 속으로 고통을 참고 견디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썼다.

아버지는 “가해학생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지하고 싸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라며 “아들의 억울함을 풀고 학교폭력이 없는 세상이 오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올렸다.

◇“이대로 묻혀선 안된다” 목소리 내=고교생의 극단적 선택이 학교폭력이 아닌, 다른 이유로 덮혀서는 안된다는 친구·학부모의 움직임이 뒤늦게나마 학교폭력 사태를 끄집어내는 계기가 됐다는 점

에서, 경찰 수사가 학교폭력의 전말을 밝혀낼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광산경찰은 오는 7일 해당 학교를 찾아 피해 학생과 같은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친구·학부모가 부모에게 알려며 밝혔다다는 점에서 이미 확보한 괴롭힘 동영상 외에 추가 학교폭력 피해 사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방관’, ‘침묵’의 균열이 깨지고 있다는 게 경찰 분석이다.

지난달 29일 광주시 광산구 어등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교생 A군의 유족은 발인을 하루 앞두고, 아들 친구의 부모로부터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전해들었다.

유족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장례식장에 많은 친구들과 학부모들이 오셨는데, 한 학부모님이 찾아와 보여 준 동영상에서 우리 아이가 또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며 “이 동영상을 보고 우리 아이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았고 데블릿 PC에 남긴 유서를 통해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안녕’이라는 제목으로 남긴 유서를 봤지만 슬픔에 잠겨 한 줄을 채 읽지 못했다. 이후 동영상을 확인한 뒤 다시 읽어보고 ‘학교 폭력을 당해 서러웠는데 친구들 덕분에 다닐 수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발인 날 우리 아들을 옮기려고 했다(운구)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맥쿼리 본사 앞에서 광주지역 시민단체연합회가 6일 오전 서울 맥쿼리 본사를 방문해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자치21 제공>

“아무렇지도 않은데, 피병 아냐?” 정신장애인들 ‘편견’에 울었다

토론회서 울분 토로...발제자로 나서 장애인정책 문제점 등 지적

정신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사례를 직접 얘기하며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들이 홀로 서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자리를 가졌다.

6일 오후 광주사회복지회 예산결산위원회실에서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광주정신장애인지원센터 등 장애인 관련 5개 단체 주최로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10년 넘게 조현병을 가진 채 살고 있다는 B씨는 이날 어렵사리 취업한 직장에서 겪은 고충을 털어 놓았다.

박씨는 “과거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게 됐지만, 스트레스와 같은 소음에 노출돼 장애 증상이 심해졌는데 함께 일하는 주변인들이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데, 왜 저러지?’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 조퇴를 하려고 했으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피병 아니냐는 상사의 말에 고

통 속에서 일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B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장애를 비장애인들과 주변인들은 이해해주지 못하면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정신장애인 내용을 포함할 것 ▲정신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제도화할 것 ▲정신장애인만의 취업시스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어 발표한 C씨는 정신장애인들은 정신병원에서 장기 입원 후 마땅히 살아갈 주거 공간이 없으며 개인 맞춤형 주거 지원과 폭 넓은 주거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정신병원 입원에 있어 환자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정연옥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게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역대학 위기극복 ‘순회 토론회’

광주시-호남대, 8일 호남대 IT스퀘어 강당

광주시와 호남대가 지역대학 현실여건을 공유하고 경쟁력 제고방안 모색을 위해 기획된 ‘광주 지역대학 캠퍼스 순회 토론회’ 첫 번째 행사를 호남대학교 IT스퀘어 1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순회 토론회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사무총장, 교육부 이지현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등 중앙·지방정부와 교육계 인사들이 한데 모여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통해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호남대학교 한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1부 주제 발표에서는 호남대 대학혁신본부 송정수 본부장이 ‘대학의 위기와 지역대학의 발전 방향’을, AI융합

대학 정영기 학장이 ‘호남대 AI특성화 추진전략’에 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또 한국대학교육협회의 황홍규 사무총장이 ‘지방대 자원을 활용한 지역과 지방대 상생방안’을, 광주시 김영선 대학발전협력담당장이 ‘광주시와 지역 대학간 협력방안’에 관해 주제발표를 이어간다.

2부 토론회에는 교육부 지역혁신과 이지현 과장과 한국생산성본부 혁신서비스부문 최상록 상무, 광주시교육청 정훈택 장학사, 동강대학교 이종현 기획처장이 패널로 나서 지역대학 위기 극복과 대학 특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총장로 빈집서 꿈 펼쳐요

광주 동구 청년창업자 모집

광주 동구는 ‘총장로 4-5가’ 일대 빈집·빈점포 등 유휴공간을 활용, 마을과 상생할 수 있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빈집 청년창업 채용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년 창업자를 추가 모집한다.

동구는 지난 5월 청년창업 5팀을 모집하고 약정식을 체결한데, 이어 이번엔 추가로 꿈과 도전을 이어갈 지역청년 5팀을 모집해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동구 거주 만 39세 이하 (예비)청년 창업자면 신청 가능하며 모집 기간은 오는 12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체육과(062-608-2242)로 문의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완도 해조류로 반려동물 사료’ 개발

조선대 링크플러스사업단·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조선대 링크플러스사업단과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가 해조류를 활용한 반려동물 사료 시제품을 개발했다.

양 기관은 최근 완도산학협력거점센터에서 견주 20명에게 완도산 다시마와 미역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사료 1개월분을 전달, 제품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링크플러스사업단과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는 늘어나는 반려동물과 수입 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해조류를 활용한 반려동물 사료 생산을 계획했다. 반려동물 식품시장은 2019년 기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 약 1조2600억 원 규모로 이중 수입 식품이 8009억 원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채희중 기자 chae@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무무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완노리상품권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저동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가(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들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